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중동 발 지정학 불안 완화, 테슬라 호재 등으로 반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3일(월) 미국 증시는 중동 불안 완화에 따른 WTI 유가 급락(-8.9%), 연준 부의장의 7월 금리인하 지지 발언, 자율주행택시 출시로 인한 테슬라(+8.2%) 강세 등으로 반등(다우 +0.9%, S&P500 +1.0%), 나스닥 +0.9%).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나, 주식시장의 무게 중심은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이란의 보복 대응 수위에 집중됐던 상황.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고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으며, 트럼프는 피해가 없었고 조기에 경고를 한 것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

이처럼 서로 합을 맞춘 듯한 미국과 이란의 공방 이후 한국 시간 24일 오전 7시 경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시간 이내 완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이란의 휴전 시작, 이스라엘은 12시간 이후에 시작). 이를 감안 시 중동발 불확실성은 증시 불안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는 것이 적절.

한편, 6월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는 고용, CPI, FOMC 등 메인 경제지표와 중동발 사태를 소화하는 과정에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신정부 정책 기대감을 보유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증시가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뚜렷한 상방 모멘텀이 없는 제약적인 환경이 직면에 있음을 시사. 중동 휴전 소식으로 유가가 급락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현 시점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방 압력이 발생하는 국면이며, 소비, 생산, 고용 등 하드데이터(실물 지표)에 관세의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임.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23일 현재 -20.8pt로 5월 말 +14.5pt를 고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사례. 이는 지난 4월 중 “셀 아메리카” 우려 확산 당시 경기서프라이즈 지수가 -21pt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 당시에는 관세 뉴스플로우에 민감했던 소비심리 등 소프트 데이터 중심으로 지표가 부진했다면, 이번에는 하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표가 부진하다는 점이 차이점이자 신경 쓰이는 부분.

과거 경험을 미루어 보아,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40pt-50pt 대까지는 급락해야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ex: 작년 8월 고용 발 경기 침체 불안 당시 -40pt대까지 하락). 아직 해당 레벨 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기 불안 쪽으로 포지션을 하방 베팅 하는 것은 이른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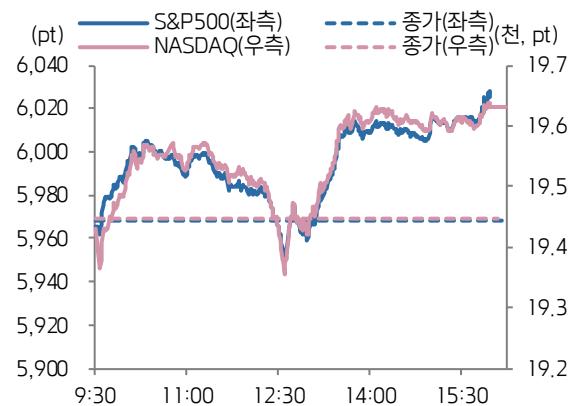
다만, 주중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지표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페덱스, 나이키 등 전방 수요 및 소비 경기 향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세 발 경기 불안 노이즈(Bad is bad)가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중동 지정학 불확실성 확대로 1%대 급락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개인의 1.3조원대 대규모 순 매수 속 이란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낙폭을 상당부분 축소한 채로 마감(코스피 -0.2%, 코스닥 -0.9%).

(다음 페이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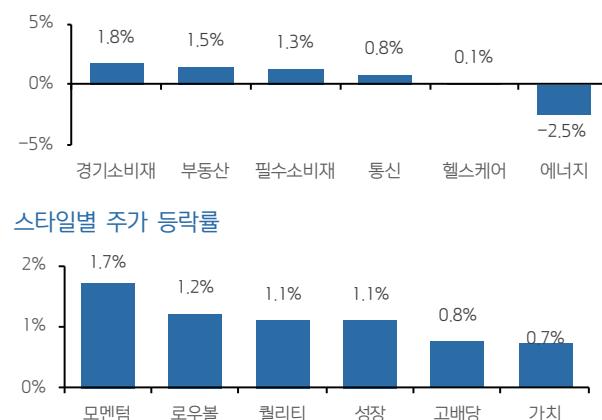
금일에는 이스라엘-이란 휴전 소식에 따른 국제 유가 급락,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강세 효과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 수급 측면에서는 .6월 이후 약 5조원 가까이 순매수 해오며 코스피 랠리를 견인했던 외국인의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업종 측면에서는 해운, 에너지 등 이스라엘-이란 사태의 수혜주였던 이들 업종에서 항공, 내수 소비와 같은 피해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일어날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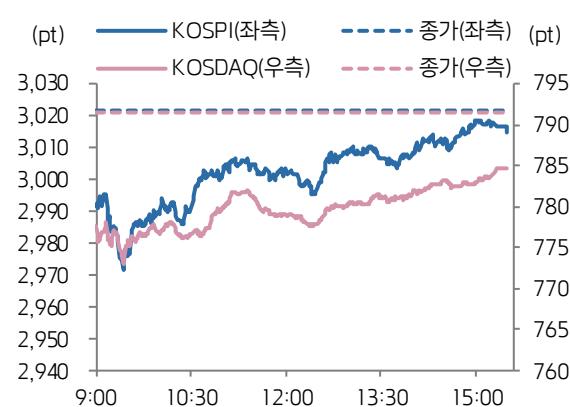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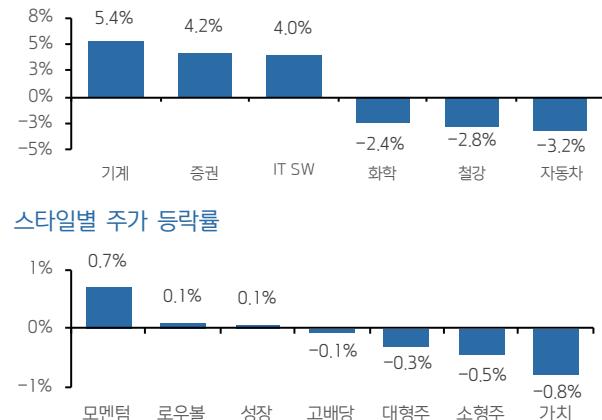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1.50	+0.25%	-19.34%	GM	48.52	+0.66%	-8.39%
마이크로소프트	486.00	+1.8%	+15.75%	일라이릴리	770.64	+1.04%	+0.2%
알파벳	165.19	-0.87%	-12.53%	월마트	97.87	+1.82%	+8.88%
메타	698.53	+2.37%	+19.5%	JP모건	278.27	+1.19%	+17.4%
아마존	208.47	-0.58%	-4.98%	엑손모빌	111.74	-2.58%	+5.77%
테슬라	348.68	+8.23%	-13.66%	세브론	146.86	-1.8%	+3.77%
엔비디아	144.17	+0.22%	+7.37%	제너럴일렉트릭	97.87	+1.8%	+8.9%
브로드컴	253.77	+1.51%	+10.05%	캐터필러	366.23	+1.58%	+1.81%
AMD	129.58	+1.04%	+7.28%	보잉	201.31	+1.29%	+13.73%
마이크론	122.08	-1.23%	+45.25%	넥스트에라	70.73	-1.1%	+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014.47	-0.24%	+25.63%	USD/KRW	1,382.00	+0.58%	-6.13%
코스피200	404.32	-0.25%	+27.22%	달러 지수	98.40	-0.31%	-9.29%
코스닥	784.79	-0.85%	+15.72%	EUR/USD	1.16	+0.48%	+11.82%
코스닥150	1,269.58	-1.45%	+12.37%	USD/CNH	7.18	-0.06%	-2.22%
S&P500	6,025.17	+0.96%	+2.44%	USD/JPY	146.15	+0.04%	-7.03%
NASDAQ	19,630.97	+0.94%	+1.66%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2,581.78	+0.89%	+0.09%	국고채 3년	2,495	+3.8bp	-10bp
VIX	19.83	-3.83%	+14.29%	국고채 10년	2,867	+1bp	-0.4bp
러셀2000	2,132.68	+1.11%	-4.37%	미국 국채 2년	3,863	-4.4bp	-37.8bp
필라. 반도체	5,244.30	+0.63%	+5.31%	미국 국채 10년	4,348	-2.8bp	-22.2bp
다우 운송	15,097.10	+2.25%	-5.02%	미국 국채 30년	4,876	-1.4bp	+9.4bp
상해종합	3,381.58	+0.65%	+0.89%	독일 국채 10년	2,507	-1bp	+14bp
항셍 H	8,597.36	+0.82%	+17.94%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1,896.79	-0.62%	+4.81%	WTI	68.51	-7.22%	-1.41%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1.48	-7.18%	-4.23%
Eurostoxx50	5,221.90	-0.22%	+6.66%	금	3,395.00	+0.27%	+24.96%
MSCI 전세계 지수	890.10	+0.49%	+5.8%	은	36.19	+0.47%	+23.75%
MSCI DM 지수	3,905.86	+0.62%	+5.34%	구리	484.95	+0.33%	+20.44%
MSCI EM 지수	1,182.25	-0.64%	+9.93%	BDI	1,689.00	-3.54%	+69.41%
MSCI 한국 ETF	69.42	+1.3%	+36.41%	옥수수	433.75	-1.7%	-2.2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69.50	-2.4%	-1.98%
비트코인	103,802.86	+4.26%	+10.77%	대두	1,046.75	-1.32%	+2.1%
이더리움	2,348.52	+7.32%	-29.82%	커피	326.55	+3.65%	+8.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